

제주지역 로컬푸드 운동의 현황과 전망

현혜경*

<차례>

- I. 서론
- II. 이론적 자원 및 연구방법
- III. 제주지역 로컬푸드 운동의 현황과 전개
- IV. 제주지역 로컬푸드 운동의 특성 및 사회적 의미
- V.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현재 제주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주지역 로컬푸드 운동의 현황을 살펴보고 로컬푸드 운동의 특성과 사회적 의미를 고찰한 뒤, 그것이 지역 사회재구조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개괄적 수준에서 논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 운동은 이전의 시민사회운동과는 다른 형태로, 운동의 현황, 목표, 자원 동원 등이 제대로 알려진 적이 없다.

현재 제주지역의 로컬푸드 운동은 주로 생활협동조합과 학교급식 연대 등을 선구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로컬푸드 운동은 단순히 먹을거리의 지역적 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을거리를 시작으로 생활 전반에 대한 전환을 통해 근대사회의 모순과 왜곡을 해결하고 호혜적인 인간관계를 회복하여 제주 지역사회를 재활성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다층적인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 '로컬' 개념의 정의 문제, 새로운 소비자 공동체의 조직과 활동을 통한 유통단계의 변화, 새로운 공동체 문화

* 전남대 사회학과 BK21 post-doc, 사회학 전공

의 생성 등이 제주지역 로컬푸드 운동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역통화에 대한 언급까지 이뤄지고 있어 향후 제주 지역 로컬푸드 운동은 ‘섬’이라는 지역성과 맞물려 어떤 탈근대적 특징들을 드러낼지 주목할 만하다.

주제어 : 로컬푸드, 로컬푸드 운동, 생활협동조합(생협), 학교급식, 사회적 기업, 지역통화, 소비자공동체, 지역사회재구조

I. 서론

먹을거리 안정성 문제와 세계식량체계(global food system)의 확산 속에서 먹을거리 주권에 대한 관심은 ‘로컬푸드와 로컬푸드 운동’에 대한 관심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1980년대를 기점으로 일어난 슬로푸드 및 로컬푸드 운동은 이제 하나의 중요한 사회운동의 한 흐름이 되고 있으며 대안적인 사회운동의 모델로 실험되어지고 있다.¹⁾ 한국사회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로컬푸드 운동은 기존의 지역사회운동과는 다른 맥락을 보여주며 사회운동 전반에 대한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있다.

‘로컬(local)’을 지역으로 상정한다면, 한국에서 지역과 관련하여 일어

1) 1990년대 초반 먹을거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쿠바는 사회주의 권력의 붕괴가 시작되고 미국으로부터 봉쇄조치를 당하자 먹을거리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에 대해 쿠바는 도시의 공터에 직접 농사를 짓는 방법, 즉 로컬푸드 정책 ‘어바나(Urbana)’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였다. 비단 제3세계 국가만이 아니다. 일본을 비롯해 이탈리아,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전세계적으로 로컬푸드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사회제도와 정책으로 모색되어지고 있다. 한국의 지역사회에서도 제주, 전남, 강원, 천안 등 여러 지역에서 붕괴된 전통음식과 농업,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로컬푸드 운동’이 막 시작되고 있다.

난 운동은 도시운동 및 농촌운동 등으로, 주로 지역의 산업구조와 계층 구조의 불평등을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지역사회운동의 가장 본질적이고 주체가 되는 지역사회의 존재 여부 자체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재구조화에 대한 인식의 확장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로컬푸드 운동’이 새롭게 모색되고 있다.

한국의 로컬푸드 운동은 단지 먹을거리의 안정성과 식량주권만이 아니라, 20세기 후반에 붕괴된 지역사회의 재구조화와 인간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일 등 공동체 복원 속에서 모색되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지역산 먹을거리 및 제철 먹을거리를 통해 대면관계를 회복한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20세기 후반의 도시화 및 산업화에 의해 붕괴된 지역사회를 재건하고자 하는 열망이 내재되어 있다. 때문에 한국의 로컬푸드 운동을 단지 표면적인 형태인 지역산 먹을거리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신토불이와 같은 민족주의를 재강조하거나 폐쇄적 지역성만을 강조하는 운동으로 평가절하하여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역사회의 재구조화와 로컬푸드 운동의 관계를 보다 세밀히 분석하는 일은 로컬푸드 운동에 대한 제한된 인식을 넘어설 수 있게 한다. 특히 로컬푸드 운동은 기존의 사회운동과 달리 어떻게 일상의 먹을거리를 통해 지역사회를 재구조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탈근대적이면서 총체적인 지역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기존과 다른 운동의 주체, 운동 목표, 자원동원의 형태를 보여주며,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 체제에 의해 동질화되는 힘들(homogenizing forces)에 맞선 현사회의 총체적 대안 운동이 지역적 차원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국에서 ‘로컬푸드 운동’이라 불릴 만한 행동들은 제주사회에서 선

구적으로 목격되었는데, 제주에서 로컬푸드 운동은 1990년대 말부터 제주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5년 한국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급식조례가 만들어져, 학교 급식에서 로컬푸드 운동의 중요성이 언급된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간 제주사회에서 있었던 로컬푸드 운동의 개념을 비롯해 현황, 운동 목표, 자원동원 등이 제대로 알려진 적이 없다. 그것은 먹을거리의 문제를 단지 물질적인 것으로 한정짓고, 자연과학의 한 분야로 여겨온 오랜 습관과 더불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등한시 한 경향이 있어왔다. 특히 관광지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이 미각적 측면이나 시각적 측면 등 관광 및 외식산업의 측면에서만 주로 다루어져왔다.

좀더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한 것은 환금작물로서의 전망 속에서 로컬푸드를 바라본 농업경제적 측면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거의 대부분 근대적이고 세계화되고 있는 농식품업 유통망 속에서 어떻게 로컬푸드가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에 골몰해 있었지, 로컬푸드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탈근대적 모습이나 지역사회 재구조화 문제를 포착해내지 못하였다. 이런 문제들은 전적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사고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과 관련하여 제주지역의 로컬푸드 운동의 현황을 살펴보고 드러나는 특성과 사회적 의미, 한계, 그리고 지역사회의 재구조화 문제와 관련하여 전망해보고자 한다. 현재 로컬푸드 운동과 관련된 지역 연구에서의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거나 거의 전무한 상태로, 이러한 작업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II. 이론적 자원 및 연구방법

1. 로컬푸드 운동의 개념과 연구대상

로컬푸드와 관련된 개념은 통상적으로 ‘지역산 먹을거리’ 혹은 ‘제철 먹을거리’, 혹은 ‘친환경 먹을거리’로 규정되고 있다. 이외 전통음식, 혹은 향토음식으로 번역하여 쓰는 경우도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로컬푸드를 전통음식이라는 시간적 정의와 향토음식이라는 공간적 정의가 혼용된 가운데, ‘제철에 나는 친환경적 지역산 먹을거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로컬푸드를 지역먹을거리라는 공간적 혹은 제철 먹을거리라는 시간적 의미로 한정시키는 경향은 현재 일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²⁾

‘로컬’이란 개념에는 일정한 공간적 거리를 넘어서는 정치·사회문화적 개연성이 함축되어 있다. 만일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이 운동적 성격을 결합하였을 때 이 개념은 매우 확장되며 포괄적인 사회적 개념으로 드러난다. 즉 로컬푸드 운동의 지향점은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포함하여 세계화되는 식량체계에 대한 저항 및 근대 산업화의 모순과 왜곡에 대한 대항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로컬푸드 운동을 단지 제철 먹을거리 운동 혹은 유기농 먹을거리 운동 혹은 지역산 먹을거리 운동으로 단순 개념화해서 사용하는 것은 로컬푸드 운동의 현상을 해석하는데 있어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2) 김종덕(2009)은 로컬푸드를 지역식량체계에서 유통되는 먹을거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지역식량체계는 세계식량체계와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어 있으며, 식량의 지역생산과 지역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식량체계이다. 이런 로컬푸드는 지역소비자와 인접한 곳에서 지역소비를 위해, 지역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한 생산이 이뤄져, 소비자들이 생산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고, 소비자들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운동과 달리 정치적 투쟁 목표보다는 안전한 먹을거리 체계 확보 등 일상의 목표를 운동의 목표로 삼는 것을 비롯해, 자원동원면에서도 기업적 혹은 조합적 성격의 자발적 소비자 조직을 구성하여 자원의 리사이클 구조를 생성해 낸다는 점과 그것을 위해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고 있어 로컬푸드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먹을거리를 통해 총체적인 근대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자발적·조직적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로컬푸드 및 로컬푸드 운동의 개념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서는 로컬푸드의 개념에 대해 유연성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념적 정의 위에 연구 대상을 제주지역사회에 한정시켜, 먹을거리를 통해 어떻게 총체적 근대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지를 먹을거리라는 독립변수와 지역사회재구조화라는 종속변수를 연결지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재 이러한 운동을 시행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단체들은 매년 증가추세이지만, 가장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은 생활협동조직들을 비롯해, 급식연대 등이다. 물론 농협 등 관변조직에서도 이러한 로컬푸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사회운동의 차원이 되기보다는 유통관로를 개선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어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새롭게 모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지역의 로컬푸드와 관련하여 연계성을 갖고자 함으로 대상에 넘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2. 로컬푸드 운동의 이론적 자원

음식문화와 관련된 이론은 인류가 형성된 이래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주제이며, 오래된 논쟁 중의 하나는 음식문화가 자연환경과 같은 유물론적 입장에 의해 좌우되는가? 아니면 사회적인 문화상징체계에 의해

좌우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전자가 인구증감 및 생태적 관점에서 최적 먹이 이론을 이용해 음식문화를 설명하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음식문화가 가지고 있는 정치성에 주목한 것이다.³⁾ 그럼에도 대표적인 두 논쟁은 음식문화를 사회유지의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기능적 관점을 유지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근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이런 음식문화에 대한 논쟁은 양자를 타협하는 관점에서 봉합되었으며, 20세기 들어 음식에 대한 민족지 구축과 사회사 연구는 인문사회과학의 관점에서 음식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런 먹는 행위가 운동과 결합하고, 하나의 탈근대적 현상 및 차세대 사회 동력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점에서 21세기 음식문화 연구는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으로 환원된다. 현재까지 로컬 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 및 연구는 주로 농업의 세계화 및 근대적 식생활에 따른 식량위기의 연구에서 출발하여 환경문제 및 윤리적 실천의 문제를 논하는 대안적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헬웨이(Halweil, 2006(2004))과 시바(Shiva, 2000)가 전자의 입장에 근거해 생물 종 다양성의 파괴와 글로벌 기업의 생명공학이 세계적 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밝히는데 집중하였다면 리피츠(Lipietz, 2002)와 싱어(Singer, 1999(1975); 2008)는 정치적 의식화와 식생활에서의 실천 윤리학을 제시함으로써 후자의 입장에 주력하였다.⁴⁾ 나아가 라페(Lappe, 2003)는 굶주림을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인권문제로까지 인식하였다. 배리(Barry, 2004)는 이론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계몽주의부터

3) 전자의 대표적인 학자는 마빈 해리스(Harris, 1987; 1992(1985))이며, 후자의 대표적인 학자는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 1978(1968)) 등이 있다.

4) 싱어(Singer)는 인류가 투명성, 공정성, 인도주의, 사회적 책임, 필요성 등 다섯 가지의 윤리적 원칙을 세우고 음식을 먹을 것을 제안하였다.

최근의 사회이론까지 역사 속 사상가들이 자연과 환경을 어떻게 보아왔는지를 점검하면서 인류의 직면 과제인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이론을 발전시켜야할 지 분석하였다.

이와 달리 지역사회재구조화와 연결지어 본다면 아이프(Ife, 200)의 논의는 로컬푸드 운동을 설명함에 있어 주목할 만하다. 그는 21세기 대안기제로 지역사회에 주목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사회 존재 여부에 대한 의문을 품고는 생태학적 사회정의적 차원에서 지역사회가 재건되어야 하며, 그 재건방식에는 사회운동가를 비롯해 시민들이 아래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기반들은 로컬푸드 운동의 확대된 맥락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한국의 경우, ‘로컬 푸드’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전통음식에 대한 민족지 구성이나, 향토음식을 통한 지역 외식산업의 성장과 관련하여 로컬푸드를 바라보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지역사회를 재구조화 하는 매개체로서 식재료를 포함한 식문화 등 포괄적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의 ‘로컬 푸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였지만, 학교급식, 농민장터, 지역 활성화, 환경운동 등과 같은 시민운동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운동이나 학문적 접근은 농업문제를 가장 중요한 로컬푸드의 연구 축으로 삼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김종덕(1997; 2003; 2006; 2007; 2008)과 허남혁(1999), 박진도(2008), 윤병선(2007; 2008), 김홍주(2004; 2006; 2008) 등이 있다.

허남혁(1999)은 정치생태학적 관점에 관심을 갖고, 먹을거리와 농업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면,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연구자는 박진도이다. 박진도(2008)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농촌의 삶에서 실현해보려는 사람들에게 주목한다. 그는 이들

이 농촌의 주체가 되어 다양한 실천을 전개할 때, 비로소 ‘성장 동맹’에 맞선 대항세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시스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김종덕이다. ‘맥도널드화’와 ‘슬로푸드’ 개념을 한국 사회에 소개한 적이 있는 그는 『슬로푸드 슬로라이프』에서 빠른 생활이 우리의 존재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고, 우리의 환경과 경관을 위협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슬로푸드’와 ‘슬로 라이프’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역식량체계에 관심을 기울여 ‘로컬푸드 시스템’의 확립을 역설하였다(김종덕, 1997; 2003; 2006; 2007; 2008).

많은 지식인들이 농촌사회에 대한 관심을 끈 상태에서 이들의 연구는 농촌사회를 활성화시키려는 대안적인 연구이다. 이외에도 로컬푸드연구회를 비롯해 새로운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로컬푸드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현재 해외 사례의 소개나 기초 조사 정도에 머물고 있어 심도 있는 로컬푸드 개념 정의 문제나 실천적 윤리학의 문제, 구체적인 지역 ‘로컬푸드운동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척되고 있지 못하다.

3. 연구방법과 자료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신문자료 등에 몇몇 단체들의 활동이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로컬푸드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들의 정관 및 활동내역을 포함해 현지조사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 1차적으로는 한국 및 제주사회에서 로컬푸드 운동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문헌조사와 자료수집, 현지조사를 병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로컬푸드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들과의 면담을 통해 로컬푸드 운동의 목표와 내용, 자원동원 등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현재 로컬푸드 운동을 분석하는 틀이 연구되어진 적은 없다. 향후 새로운 이론적 모델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괄적 수준에서나마 제주지역 로컬푸드 운동의 현황과 특성,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제주지역 로컬푸드 운동의 현황과 전개

1. 제주지역의 생활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란 말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이 생협이란 단어의 사용과 기원에 대해서 icoop 생협은 ‘일제침략기인 1920년대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협동조합인 소비자조합운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⁵⁾ 소비자들이 조직한 협동조합은 소비자조합, 구매조합, 소비자협동조합이라고 불리다가 1990년대 들어와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란 명칭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는 소비자협동조합(consumer cooperative)라고 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만 ‘생활협동조합’이라고 부르고 있다.

원래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은 1945년 일본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소비자조합운동을 주도하던 활동가들이 소비자조합이란 단어가 소극적인 의미를 표현한다며, 좀 더 생활 속에 깊게 침투된 대자본의 횡포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생활’이란 명칭을 추가하면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란 단어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⁶⁾ 이후 일본은 1948년

5) 아이쿱(icoop)생협 홈페이지(<http://www.icoop.or.kr/>)를 참조하였다.

6) 위와 상동

소비생활협동조합법을, 한국에서는 1998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두게 되었다. 다만,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물자를 취급하는 소비자협동조합이 존재하는데, 친환경농산물만 취급하는 소비자협동조합은 한국의 생활협동조합이 거의 유일하다.

한국의 경우 일제강점기와 1970년대까지는 서민들에게 필요한 생활물자를 취급하는 활동들을 펼쳤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재건된 생활협동조합은 직거래 친환경농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신자유주의에 따른 초국적 기업과 투기 자본들이 영구적 식량지배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광우병, 유전자 조작 동식물 등의 비인간적 생산체제에 대응해 소비자를 조직화한 소비체제를 통해 대안생산체제 및 생활세계 전반을 새롭게 조직하려는 경향이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자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생협들은 자본의 독점으로 피폐해진 노동자 및 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독점타파에 대해 먹을거리를 근간으로 소비자들의 조직화 및 일상을 재구조화 하는 운동 경향을 띠었다.

더욱이 IMF를 전후로 한국의 경제 주권이 급속히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 편입되면서 지역의 많은 생협들도 경영실패로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되었는데, 이때 새롭게 모색된 것이 사업연합을 통한 재건, 즉 생협연대였으며, 이후 지역단위를 기반으로 한 전국적 생협조직이 형성되었다. 대표적인 생협조직이 한살림, 아이쿱(icoop) 같은 생협조직들로, 아이쿱의 경우 70여개의 지역에, 한살림의 경우 20여개의 지역에 지역 생협들이 분포해 있다.

현재 제주 지역에서도 전국단위의 생활협동조합이 설치되어 있는데, ‘신시’, ‘초록마을’, ‘잘먹고 잘사는 법(일명 잘잘)’, ‘한살림 제주’, ‘아이쿱(icoop)제주생활협동조합(일명 제주생협)’ 등이 있다.⁷⁾ 제주지역에서

가장 먼저 생겨난 생협은 1999년에 설립된 ‘제주생협’이다. 그 다음으로 생겨난 생협은 ‘한살림 제주’로 2008년 5월에 제주에 설립되었다. 나머지 생협들은 2009년에 설립되었다. 이들도 대부분 먹을거리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중 제주지역에서는 ‘제주생협’과 ‘한살림 제주’가 양대 산맥을 이룬다. 이 두 개의 조직 구성원은 1천여명 가량 된다. 본 절에서는 이 두 생협을 중심으로 제주지역의 생협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제주생협’의 역사는 1996년부터 거슬러 올라가 살펴볼 수 있다. 그 당시 ‘우리 농모임’이란 조직이 생겨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1997년 ‘제주생활협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이후 ‘우리 농모임’과 ‘제주생활협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가 통합되어, 1998년 ‘제주 푸른생활협동조합’으로 창립하게 되었다. 이것은 ‘제주생협’의 전신으로, 1999년에 재창립되면서 비영리법인인 ‘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창립하게 되었다.

‘제주생협’은 직거래 사업, 교육사업, 생활문화운동, 유대활동 등의 사업을 펼쳐왔으며, 무농약 유기농산물 및 환경제품을 중심으로 ‘생명 있는 먹을거리’를 생산, 가공하여 직거래 방식으로 공급하는 ‘직거래 사업’과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과 생활공동체운동의 의미와 뜻을 전수하는 ‘교육사업’, 조합원들이 새로운 생활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리고 생산공동체와 환경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해 운동을 확산시키는 ‘유대활동’ 등 크게 네 가지 영역의 사업들을 펼쳐오고 있다.

‘한살림 제주’의 경우 2005년부터 생태 텃밭 운영, 생산자와 소비자의

7) 아이쿱(icoop) 제주생협은 현재 제주시 삼도1동 804-1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살림 제주는 제주시 노형동 720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만남, 공개 강좌 등을 실시하면서 3년간의 준비 끝에 2008년에 한살림 제주를 창립하게 되었다. ‘한살림 제주’의 중점 활동 목표는 “지역과 함께! 주민과 함께 모두를 위한 한살림 제주!”라는 슬로건 아래 ‘좋은 소비’ 생활운동을 비롯해 생활공동체 만들기, 소통과 연대를 통한 한살림 가치 확산 등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제주생협’과 ‘한살림 제주’ 모두 가장 기본적인 운동은 친환경-유기농산물 직거래 운동이다. 그리고 이 직거래를 위한 매장들이 존재한다. 또한 직거래는 생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소비자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전국단위의 생협들이 이 운동을 기본적인 운동의 방향으로 삼고 있지만, 제주지역의 경우는 이것이 로컬푸드 운동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례는 제주지역 친환경학교급식 운동과도 연관된다.

〈표 1〉 제주지역 생활협동조합의 현황

명칭	창립시기	매장수	위 치
제주생활협동조합	1999	1	삼도동
한살림 제주	2008	1	노형동
초록마을	2009	5	일도동, 도남동, 연동, 노형동, 서귀포
신시	2009	2	노형동, 이도동
잘먹고잘사는법	2009	1	연동

2.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제주연대

제주지역은 200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제공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제주지역의 초등학교는 1994년부터,

중고등학교는 1996년부터 완전 급식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직영급식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때도 전국 최초로 학교 급식 시설을 완비하고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반은 이후 전국 최초로 친환경급식조례를 제정하고 친환경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었다.

친환경 급식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중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노력이 시발점이 되었다. 2003년 제주시 아라중학교는 직영급식에 이어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친환경유기농급식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⁸⁾ 그리고 친환경 급식을 위한 ‘초록학교’ 및 ‘초록농장’을 운영해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이 직접 생산한 친환경 야채로 2003년 11월 3일 전국 최초로 친환경 급식을 시작하였다.

이런 시도는 이후 제주지역 전교조를 비롯해 종교계, 시민사회 단체들을 움직여 ‘제주지역 시민사회 단체 확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게 하였으며, 2003년 6월 5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연대(이하 친환경급식연대)준비위’가 발족하였다. 이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죽어가는 우리 농촌을 살리며, 나아가 자연과 인간이 상호 공존공생하는 세상공동체를 건설하자’는 것이 슬로건이었다.

그러나 친환경 급식은 돈이 많이 들었다. 따라서 제도적 지원을 받기 위해 조례 제정 운동에 들어갔다. 친환경급식연대는 2003년 11월 21일 친환경급식조례제정을 위한 도민발의를 선포하고, 제주 전역에서 조례 제정 청구 서명에 돌입하였다. 2개월 만에 법적 요건인 7,800명을 넘는 1만 1천여명이 서명, 2004년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되어 전국 최초로 친

8) 이때 아라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전교조와 함께 ‘학교와 1차 산업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연수를 갖기도 하였다.

환경급식조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해당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지원이 이어졌다. 당시 관광복권을 발행한 제주도는 복권발행 수익금의 상당액을 학교 급식소 시설에 투자하였다. 또 제주도청 예산 69억 원 이상을 교육청에 진출시켜, 학교 급식소를 지을 수 있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다.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조례 문구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위반이라며 행정자치부가 수정을 지시하였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에 ‘우리 농산물’이라는 문구를 빼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제주도의회는 이를 거부하였고, 조례는 원안대로 공포되었다. 대법원에 조례제정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행정자치부도 방침을 철회하였고, 2005년부터 제주도에서는 친환경급식조례가 시행되었다.⁹⁾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계획’이 수립되었다. <표 2>처럼 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05년에는 10% 2006년에는 30%로 점차 확대한 후 2007년부터는 모든 학교에 우리 농산물로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십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러한 친환경급식은 제주의 농업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성과를 낳았다. 유통이나 판로가 마땅치 않아 친환경 농업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던 농민들에게 친환경 급식은 새로운 시장이 되었다. 학교라는 큰 소비처는 친환경 및 지역농업 생산자의 수입과 생산체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하였다. 물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아직 친환경 농산물 공급체계가 확실하지 않아 친환경농민들 사이에서 ‘부익부 빈익빈’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급 유통망이 제대로 확립

9) 오마이뉴스(2006년 7월11일 자) 기사를 참조하였다.

되어 있지 않아 급한 대로 농협을 유통망으로 선정한 결과, 농협의 친환경 농업작목반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농가들이 소외되었다.

그럼에도 2003년 한 중학교에서 시작된 친환경 급식 운동은 농업을 제주도 전략 산업으로 바꾸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 발전 전략에도 관광과 교육, 의료산업만이 대상이 되었을 뿐, 농업은 제외되어 있었다. 하지만 친환경급식으로 친환경 농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농축수산인들과 도민들은 ‘친환경 농업’을 제주도의 핵심 산업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2005년 정부와 제주도가 이를 수용, 친환경 농업 육성을 제주의 핵심 산업으로 채택되었다.¹⁰⁾

〈표 2〉 조례 제정 이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규모¹¹⁾

년도	학교수(개교)	인원(명)	지원액(원)	비고
2005.3.2	29	11,295	10억	시범운영 개시
2006.3.2	97	32,142	20억	2단계 시범 실시
2007.3.2	197	71,002	35억	본 사업시작
2008.3.2	225	76,700	37억5천만	-
2009.3.2	253	91,155	46억4천5백만	-

로컬푸드 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은 단지 아이들에게 최선의 재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게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뤄지는 농사체험, 향토 요리 실습, 식교육 등을 통해 생활전반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일정 규모의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안

10) 위와 상동

11)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 제주연대(<http://www.jejugreen.net/>)’에서 밝힌 내용을 본 연구자가 도표로 재구성한 것이다.

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농업 생산자의 수입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재구조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¹²⁾ 특히 이런 점에서 로컬푸드 운동은 생산자들을 교육시키고, 환금작물로 고착화된 제주지역의 농업구조를 변화시키는 어려움이나 모험보다는 소비자들을 교육시키고, 소비를 통한 생산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 가능한 것으로 모색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만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지역 먹거리와 연결함으로써 농촌 사회의 재구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3. 사회적 기업

생협 조직이 윤리적인 소비자를 통해 생산을 바꾸고, 지역사회를 바꾸고자 한다면, 이제 생산을 담당하고 있던 기업도 착한 기업의 시대를 요구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사회적 기업이다. 물론 한국 및 제주지역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은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대개 일반적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 기업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비영리 조직과 영리 기업의 중간형태의 기업이다. 한국에서는 2005년 노동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일자리 T/F팀이 꾸려진 후 2007년에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법규정들이 시행되었다.¹³⁾

12) 2009년 2월 창립한 '아이건강 제주연대'도 그런 목적을 수반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먹거리를 통해 환경, 건강, 생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이 사회적 기업의 태동은 전세계적인 경제불황과 관련 있다. 1980년대 이후부터 지속된 경제성장의 둔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민간부분의 고용창출능력 저하, 그에 비해 급속히 이뤄지고 있는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서비스 수요의 증가는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확대를 통해 고용창출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이 시작되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의 형태를 띤다. 이제 성장지상주의 기업에서 사회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기업문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기업의 문화는 ‘착한 소비’를 유도하도록 설계되어졌다. 여기서 ‘착한 소비’란 윤리, 환경적으로 올바른 생산 방식을 채택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보았던 생협조직이 윤리적인 소비자를 조직해, 윤리적 생산자의 상품만을 소비하겠다는 것에 대응해 윤리적 생산을 하는 사회적 기업의 생산품을 사용하는 축이 맞물린다고 보아야 하겠다.

이런 사회적 기업의 종류와 형태는 다양하며 늘어나는 추세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관련 조례 제정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은 244개(2009년 5월 28일자 기준)이다. 이 중 제주에는 7개의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13) 사회적 기업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go.kr/company/company01.php>)를 참조하였다.

2009년 기준 제주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평화의마을, 마로원, 제주YWCA, 제주사회적 일자리 지원센터, 유한회사 클린서비스 보금자리, 직업활동센터 일 배움터, 사회복지법인 청수아리랑 김치, 유한회사 행복나눔 푸드 등이 있다. 이중 2개 업체는 음식과 관련된 기업이다. 특히 제주에서는 감귤, 꽃 같은 지역 특색에 맞는 아이템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및 지역사회 재구조와 관련해서도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¹⁴⁾

제주 도의회에서도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제주지역 경제 또한 최근 5년간 저성장에 머물고 있다보니, 이 시기를 계기로 내생적 발전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기업과 사회가 함께 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을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¹⁵⁾

제주지역의 사회적 기업과 관련하여 형성되는 지역과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은 세계화에 대응한 개념으로 종종 상정된다. 세계화 속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찾는 것과 세계화가 침범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지역’이 화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 산업화 도시화를 겪으면서 붕괴되어 버린 작금에, 지역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기업들은 지역사회의 재구조 및 그에 따른 지역 물적 자원의 리사이클 형성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그런 점에서 자본의 도외유출이 심각한 제주에서 사회적 기업과 공동체 재구조는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14)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이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으로, 지역사회 재구조에서 먹을거리가 어떻게 마을 만들기와 관련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15) 제국의 소리(2009년 5월 20일자, 6월 21일자, 7월 2일자, 7월 3일자) 기사를 참조하였다.

IV. 제주지역 로컬푸드 운동의 특성 및 사회적 의미

1. 다층적 ‘로컬푸드’ 개념의 합의 문제

지역적 차원에서 모색되는 로컬푸드 운동은 아이러니하게도, ‘로컬’이란 개념을 둘러싸고 많은 혼란과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로컬푸드 운동을 주도하는 운동가들이나 로컬푸드를 알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인식에서 대부분 로컬푸드의 개념은 ‘지역산 먹거리’, 혹은 ‘제철 먹거리’, 혹은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로컬 푸드에 대한 인식의 태도는 소비형태를 결정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지역산 먹을거리로만 로컬푸드를 인식하는 경우 ‘제주산’ 이용을 독려하게 되는데, 실제로 제주산만을 로컬푸드로 인식한 경우 매우 제한된 음식재료만을 선택하게 된다. 왜냐하면 대규모 소품종 농업으로 전환된 제주농업의 기반에서 바로 지금 제주산이라는 지역 먹을거리만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소비에서 불가능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협매장이나 지역먹을거리를 파는 곳에서는 거의 국내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생산물을 판매하고 일부를 제주산으로 채워 판매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제철 먹을거리나 친환경 먹을거리로 인식하는 경우 지역 먹을거리라는 측면보다 훨씬 유연하게 소비자들을 파고들고 있다. ‘웰빙’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대형 먹을거리 사고(일명 식품 안전 사고)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아 헤매는 대중 소비자들을 낳았다. 사실 제철 먹을거리는 현 생산과 유통체제에서 애매모호한 단어이다. 사시사철 원하는 먹을거리가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컬푸드를 친환경 먹을거리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운동가들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대형

식품기업들이 친환경 식품 사업에 뛰어들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로컬푸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아직 완전히 합의된 로컬푸드와 로컬푸드 운동의 개념은 없기에 나름대로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로컬이란 개념에서 훨씬 더 다층적인 의미가 생성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먹을거리만 놓고 보아도 식재료마다 다양한 지역적 거리가 있다. 예를 들어 쌀이 나지 않는 제주의 경우 쌀의 지역적 거리는 국내로 확대된다. 만일 동일한 공간적 거리로 지역산 먹을거리를 주장한다면, 로컬푸드 운동은 현실에서 매우 불가능한 운동이 되는 것이다. 사실 로컬의 지역적·공간적 거리 또한 매우 다양한 층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공간적·시간적 층위 외에도 지역 먹을거리의 소비를 이끌어내는 문화적, 심리적 로컬의 층위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로컬의 개념은 국내와 지역이 혼재되어 있다. 이것은 때때로 자신이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의 문화와 관련 있는데, 이 경우도 식재료처럼 다양한 로컬의 층위를 보여준다.

최근 제주지역의 식당에 가면 돼지고기의 경우 제주산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나머지 식재료에 대해서는 국내산으로 표기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한 식당에서 판매하는 식재료에 제주산과 국내산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돼지고기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국내산보다 제주산이라는 표기에 더 많은 신뢰를 보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것일까? 그것은 제주사람들이 흑돼지에 대하여 갖는 문화적 향수와 관습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돼지고기를 놓고 국내산과 구별하여 제주산이라는 로컬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시켜 분리하는 것이다.¹⁶⁾

소비자들이나 로컬푸드 운동가들에게 ‘지역’이란 개념은 훨씬 3차원

적이며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로컬의 개념을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개념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이 로컬푸드 운동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며, 이것을 해결하고 풀려는 연구모임들이 가동되고 있다.¹⁷⁾ 로컬푸드에 대한 3차원적 개념을 산출해 내는 것이 현재 로컬푸드 운동이 당면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인 것이다.

2. 유통단계의 축소와 소비자 공동체

현재 로컬푸드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운동가들은 로컬푸드를 지역산 먹을거리와 친환경 농산물로 한정하는 경향 속에서 로컬푸드 운동을 통해 대기업 유통의 단계를 지역순환체계 내로 전환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로컬푸드의 생산 라인은 기존의 생산 및 소비 사이클과 달라진다.

16) 심리적 로컬의 경우,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제주시-서귀포시 간의 거리가 불과 수십 Km에 지나지 않지만, 사람들은 웬만한 일이 아닌 이상 제주시 사람들이 서귀포시로 가거나 서귀포시 사람들이 제주시로 건너오지 않는 데서 목격되기도 한다. 이처럼 로컬에 대한 사회심리적 측면은 다양한 층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로컬푸드에서 지역의 의미 및 개념 상정에 다층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예는 여러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 2008년 7월 제주도는 전국 규모의 소비자 연합조직과 제주도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단체간의 만남을 주선하고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 공동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식에는 한살림 서울 생협, 아이쿱 생협연대, 한국여성민우회 생협, 두레생협연합회 등 소비자 단체와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인 생드르 영농조합법인, 참맑은 영농조합법인, 제주유기농 영농조합법인 등이 참여하였다. 이런 맥락은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한국사회에서는 상당히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제주의 소리, 2008. 7. 24 참조). 여기서 지역사회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한정된 거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로컬’과 관련된 개념은 새롭게 공간으로써의 로컬, 시간으로써의 로컬, 문화적 로컬로써 조망되어야 하며 여러 층위의 ‘로컬적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다층위의 로컬이 지향하는 것은 공동체 복원 및 지역사회의 재구조화이다.

17) 대표적인 연구모임이 대안연구공동체 로컬푸드 연구모임과 생태도시연구소 등이다.

우선 생산-유통-가공-소비의 지역내부 연결을 통해 지역순환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이로 인해 농민들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식품을 보장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생산-선별-포장-장거리유통-마케팅-소비 등의 다단계를 거쳐야 하는 광역 식량체계와 비교해 로컬푸드는 유통의 거리를 지역적 개념으로 축소함으로써 생산-유통-소비 3단계만을 지역사회 안에서 순환시켜 지역사회를 재구조화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외부자본의 유입이 아닌 내부 자산에 의한 발전이 전제되는 것이다. 이는 지역의 기본적인 인구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 건강성을 고려해 지역기반의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의미한다.

이는 로컬푸드 운동의 현재 지향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로컬푸드 운동을 살펴보았을 때 목표와 활동 그리고 그에 따른 자원동원방식이 기존 사회운동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 관련 단체들의 대부분 목표는 먹을거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를 재구조화하겠다는 목표를 내포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들의 목표가 이전의 다른 사회운동과 달리 포괄적이며, 생활전반을 개선해, 지역사회재구조로 나가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활동적인 측면에서도 유기농 매장의 상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차원을 넘어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대면관계를 넓히는 행사와 도시민과 농어촌민의 교류, 지역 소비주체들의 모임 등을 통해 이러한 목표들을 실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자원동원방식에서도 이전의 사회운동과 달리, 조합원이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생산자 및 소비자 공동체 조직의 인적 동원 방식과 그들로부터 발생하는 생산물과 자본 등 물적 자원을 통해 이 로컬푸드 운동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다. 생협 등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공동체는 기존의 대량생산체제 하에서 이미지를 통해 구축되었던 불특정 소비대중과 달리 실제적이고 조직적인 소비자를 조합원 소비체제로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왜곡된 기업생산체제에 대응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나아가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망가져버린 지역사회의 재건 및 재구조의 문제로까지 확장된다.

앞서보았던 생협 및 급식연대, 사회적 기업 모두 도시 생산 및 소비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의 생산은 착하며, 소비 또한 윤리성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전 운동과 달리 조합원 체제로 묶인 소비자 공동체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소비자 공동체는 생산자 공동체를 지키며 생산자 공동체와 함께 농업 위기 및 먹을거리 위기를 분담하는 트러스트(trust) 역할을 한다. 물론 이러한 트러스트의 형태는 서구를 비롯해 한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제주지역의 생협운동은 지역운동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특징을 드러낸다.¹⁸⁾

이들 운동가들은 이전까지 농촌 내부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에서 역방향을 선택하여 농촌을 담보로 성장하였던 도시가 이제 농촌을 위한 담보물이 되어 농촌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것을 통해 농촌 공동체와 도시 공동체가 함께 사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다.

18) 각 나라에는 소비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여 지역사회의 농업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지원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개별 소비자가 품목별로 가격에 의해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소비자 그룹이 일정 기간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정해진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패키지로 구입하는 방식으로 매주 수확하는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담아 소비자들에게 전달한다. 이것은 트러스트의 한 예로 농업을 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공동체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3. 새로운 지역 공동체 문화

앞서보았던 유동단계의 축소와 소비자 공동체의 조직 등은 제주지역 로컬푸드 운동이 보여주는 지역사회 재구조화의 한 특징을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도 지역사회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여러 다양한 실험들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도시 소비자 공동체는 지역별 모임을 만들고, 대면적 관계에서 그들이 시행할 수 있는 여러 문화적 실험들을 수행하고 있다. 공동의 텃밭 일구기, 전통 및 천연 요리 같이 만들기, 지역 살림 마을 장터 등은 지역사회 재구조화를 위한 문화적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¹⁹⁾

이러한 실험들은 생협외 소비자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생협외 소비자 조직은 단순히 물건만을 사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포괄적 소비문화를 만들어내는 주체로 활약한다. ‘한살림 제주’의 경우 연동, 신촌, 서귀포 등지에 살고 있는 조합원들이 마을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이 마을 모임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비를 돕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생활문화들을 창출하고 있다. 마을 모임 안에는 다시 주제별로 소모임의 형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표 3>은 연동마을의 사례로, 제주시 신제주 연동에 살고 있는 한살림 제주의 조합원들은 2008년 9월에 마을 모임을 만들었다. 이들은 거의 매달 만나서 착한 소비, 지역 먹을거리, 환경, 교육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친환경적이거나, 지역적인 음식을 만드는 시간을 갖는다. 이들은 모임을 통해 논의된 것을 생협외에 제안하기도 하고, 직접 실행하

19) 여러 국가들에서 로컬푸드의 실현을 위한 문화적 수단으로써 공동체 텃밭, 도시 농업, 동네 부엌, 지역레스토랑, 지역화폐 등을 이용하고 있다.

기도 한다. 이들은 지역 살림 장터(Community Eco-Market)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런 마을 모임은 살림 정보를 나누고,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출하면서 현재의 자본주의적 소비문화와는 뚜렷하게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연동마을 마을 모임과 활동²⁰⁾

년 월 일	내 용
2008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촉진물품에 대한 논의(두부, 포도) • 한살림 물품과 일반 물품의 차이점 논의 • 막걸리빵 만들기
2008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채 진빵 만들기
2009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 수거된 쓰레기 처리와 교육 (퇴비 만들기/화분 키우기) • 생산지 방문과 일손돕기 • 오이피클 만들기
2009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교육관방문-회천 쓰레기 매립장
2009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비 만들기 • 상추 재배

특히 최근에는 제주지역통화시스템 ‘레츠(Let’s)수눔음’공제조합이 기획되고 있기도 하다. 레츠수눔음은 각종 노동력을 ‘폼’이라는 지역통화로 교환하여 축적시켜놓은 뒤 ‘교환시장(실제 물품과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과 호혜시장(기증과 기부, 자원활동이 이뤄지는 시장)’을 통해 각종 물품 및 서비스의 거래가 이뤄지는 시스템을 말한다.²¹⁾ 이러한

20) ‘한살림 제주’ 홈페이지(<http://jeju.hansalim.or.kr/>)에 나와 있는 연동 마을 모임의 활동을 일별로 본 연구자가 구성한 표이다.

21) 지역화폐 실험은 1989년 캐나다 벤쿠버의 코목스 밸리에서 시작되었다. 코목스 밸리에서는 공군기지 이전과 목재산업 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18%로 올랐다. 마이클 린튼은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궁리하다가 ‘녹색달러’라

시스템은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및 소비자본주의와는 다른 것으로 '화폐'가 사라지고, 자본에 의해 규정받던 많은 경제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새롭게 인간의 가치에 의해 규정되는 과정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화폐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사회적 안전망은 무너지면서도 화폐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상상에서 이제는 지역통화 실험을 통해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공동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나누고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서비스를 나눌 수 있다. 지역통화는 실업, 빈곤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며 지역공동체의 자생력을 회복시켜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효과를 갖는다. 지역화폐 운동은 돈 중심의 교환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정감 있는 거래를 통해 지식과 정보의 나눔 문화로 가는 문명전환을 위한 태동이라 할 수 있다.

는 이름으로 지역통화를 시작하였다.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역주민들 사이에 물건과 기술, 서비스를 서로 교환하였던 것이다. 공개된 거래 내역에 의하면 4년 동안 지역에서 거래된 녹색화폐 총액 수는 35만 달러에 이른다. 그 결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특별한 투자나 특정자원을 개발하지 않고도 지역 내 상호교환을 통해 수입을 얻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였다. 1990년대로 돌아오면서 지역화폐운동은 영국에서 약 5백여 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약 300여 건이 진행되었다. 스위스,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과 남미, 아시아에도 빠르게 퍼지는 추세다. 한국의 경우 1998년에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모임'이 미래화폐라는 이름으로 첫 지역화폐를 운영하였다. 이후 환경단체, 지역주민단체, 대안교육단체, 유기농산물업체 등의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구청, 동사무소 등의 공공영역에서도 시도하고 있다. 최근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은 대전의 '한밭 레즈'로 2000년 2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해 540여명의 개인회원들과 약 60여 곳의 가맹업소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밭레즈의 화폐의 단위는 '두루'로써, 거래 품목은 요리제공, 옷 만들기, 아기 돌보기 등 '살림품앗이'와, 병원, 한의원, 약국, 건강강좌 등 '건강품앗이', 환경농산물 및 일반농산물 등의 '지역생산물품앗이' 등 다양하다. '배움 품앗이', '강좌, 강습 품앗이', '취미, 문화품앗이', '기술품앗이', '서비스, 상담품앗이', '노동력품앗이' 도 있다(<http://blogs.ildaro.com> 참조).

V. 결론

본 연구는 제주지역 사회의 로컬푸드 운동의 현황을 아주 거칠게 살펴본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에 대한 관심과 환원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라고 여겨진다.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 환원을 포함하여 ‘로컬푸드’로 재생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 농산물만으로 먹을거리 문제를 환원하지는 것이 아니라 넓게는 근대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모순에 대한 이론적 대안을 찾고자 함이며, 가깝게는 세계화에 의해 야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직면한 국가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통해 대응해 나가려는 새로운 사회 변혁 활동이 ‘식탁혁명’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로컬푸드’운동은 단순히 먹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닌 탈근대를 지향하는 하나의 사회모델이자, 지역사회 재건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전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던 실험적인 행동들이 현재 확산과정에 있으며, 주의를 환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로컬푸드와 로컬푸드 운동에 대한 지역의 인문사회과학적 관심은 미미하다. 종종 로컬푸드 운동이 매우 구조화되어버린 농업경제구조 속에서 가능성이 있는가란 질문들이 있다. 이에 대해 김종덕(2008)은 우리나라의 경우 로컬푸드의 생산과 공급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전망한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영농규모가 적어 단일작물이 아닌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고, 농민들이 새로운 투자비용, 기술습득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농산물 산지와 가까운 거리에 많은 소비자들이 있고, 농산물, 식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불어 위기에 놓인 시민사회운동이 새로운 지향점으로 ‘지역’을 염

두에 두고 있다는 것도 로컬푸드 운동의 확장에 힘을 실을 수 있다. 1980년대 말부터 일어난 생명운동과 함께 전일적인 생명활동운동의 기초단위로 지역에 대한 관심이 환원되어 왔다. 지역에 대한 관심을 둔 시민사회운동은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시장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 공공영역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데서 나아가 호혜적 관계망 회복을 통해 지역사회를 복원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호혜의 지역 경계를 일으킬 동력으로 로컬푸드 운동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로컬푸드 및 로컬푸드 운동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관심이 지역 연구에 있어서 더욱 확대되어질 것을 요구받고 있다. 더불어 본 연구와 관련하여 제주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층위의 로컬의 개념과 지역통화에 대한 시도를 쫓아 이것이 문명사적 전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단행본 및 논문

- 김광익, '음식의 생산과 문화의 소비: 총론',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 26집, 1994, p.7-50.
- 김종덕, 『원조의 정치경제학』,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 _____, 'WTO의 농업구조화: 문제점과 대안',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13권 1집, 2003, p.239-261.
- _____, 『농업사회학』,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6.
- _____, '지역식량체계 농업회생방안과 과제',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17권 1호, 2007, p.5-32.
- _____, '우리나라 로컬푸드 정책의 방향', 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학』 제9권 제2호, 2008, p.85-113.
- 김홍주, '슬로푸드운동과 대안식품체제의 모색',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14집 1호, 2004.
- _____, '생협 생산자의 존재형태와 대안농산물체제의 모색-두레 생협생산자회를 중심으로',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제16집, 2006, p.95-141.
- _____, '생협운동과 지역먹거리체계: 풀무생협 사례연구', 2008년도 한국환경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 『먹을거리의 환경사회학』, 2008.
- 박진도, '성장동맹에 맞선 저항, 농촌에서 시작하자', 프레시안 기사, 2008.
- 윤병선, '일본 지산지소운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농촌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 2007.
- _____, '로컬푸드 관점에서 본 농산가공산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과 경제연구』, 2008.
- 윤형근, '로컬푸드 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재구성', 제주생태도시연구소, 『제주지역 로컬푸드 아카데미(2009년 5월-6월)』, 2009.
- 허남혁,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및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담론 분석: 국내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1999.
- Barry, J., *Environment and Social Theory*.(추선영 · 허남혁, 『녹색사상사: 루소

- 에서 기든스』, 이매진, 2004.)
- Halweil, B., *Eat Here*, 2004.(김종덕 외, 『로컬푸드: 먹거리-농업-환경, 공존의 미학』, 서울, 2006.)
- Harris, M., *Food and Evolution*, Temple University Press, 1987.
- _____, *The Sacred Cow and the Abominable Pig: Riddles of Food and Culture*, 1985.(서진영 옮김, 『음식문화의 수수께끼』, 한길사, 1992.)
- Ife, J., *Community Development*, 2002.(류혜정, 『지역사회개발』, 인간과 복지, 2005.)
- Lappe, F. M., *World Hunger: twelve myths*.(허남혁, 『굶주리는 세계: 식량에 관한 열두 가지 신화』, 창비, 2003.)
- Levi-Strauss, *L'Origine des manieres de table*, Paris, 1968.(Eng. trans. The Origin of Table Manners, London, 1978.)
- Lipietz, A., 허남혁(역), 『녹색희망』, 이후, 2002.
- Shiva, V., 허남혁,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당대, 2000.
- Singer, P& Mason, J., *The Ethics of What We eat*(함규진, 『죽음의 밥상』, 산책자, 2008.)
- Singer, P., *Animal Liberation*, 1975.(김성한, 『동물해방』, 인간사랑, 1999.)

❖ 신문기사

오마이뉴스(2006년 7월 11일자)

‘들어는 봤나, 별 4개짜리 학교급식-급식파문, 제주에 물어보라’

제주의 소리(2009년 5월 20일자)

‘제주 사회적 기업 어떻게?...스타 기업을 만들자’

제주의 소리(2009년 6월 21일자)

‘우후죽순 마을 만들기 사업...진짜 좋은 마을은?’

제주의 소리(2009년 7월 2일자)

‘제주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성장 가능성은 있나?’

제주의 소리(2009년 7월 3일자)

‘제자리 제주경제 돌파구는 사회적 기업 육성’

제주의 소리(2008년 7월 24일자)

❖ 기타 자료

<한살림 제주> 정관

<제주생활협동조합> 정관

<아이건강연대 제주연대> 창립식(2009년 2월 26일) 자료 및 정관

<제주지역통화시스템, '레츠(let's)수놓음'> 운영계획서(안)

Abstract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local food movement in Jeju Area

Hyun, Hye-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through local food movement currently appearing in Jeju area; fi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food movement and its social implications; and figure what kind of relation is taking place between the movement and the regional and social re-structurization, at a general level. This movement is seen quit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civic movements, and the details of it such as the ongoing, the objective and the source supplies are hardly known till now.

The current local food movement in Jeju area has been continuously spread mainly through cooperatives and school cafeterias. The local food movement does not merely define food according to regional boundaries, but also aims to find ways to change how we eat in daily lives; solve contradictions and distorts of the modern society; restore reciprocal humanity; and revitalize the regional societies in Jeju area.

In the courses, the matter regarding the definition of 'local' which contains multiple meanings, the change of distribution process through new consumers groups and organizations, creation of new social cultures, etc. are the characteristics that appear during the process of the local food movement in Jeju area. Recently, there is an public opinion regarding the regional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in Jeju,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o the future phases of the local food movement in Jeju area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as to what images Jeju will have with its regional trait as 'island.'

Key Words

local food, local food movement, cooperatives, school cafeteria, social corporation,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consumer groups, and regional and social re-structurization

교신 : 현혜경 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BK21 연구실

(E-mail : syaron@hanmail.net 전화 : 062-530-0126 / 019-698-0973)

논문투고일 2009. 07. 25.

심사완료일 2009. 08. 11.

게재확정일 2009. 08. 13.